쌓인 부채에 코인 투자 실패…막다른 길 내몰린 듯

조유나양 가족 극단적 선택 왜

인터넷서 가상화폐 수차례 검색
지인 "코인 투자로 적잖은 돈 잃어"
독촉장에 집 월세도 수개월 밀려
경찰 미납고지서 등 집계 결과
금융권 채무만 1억원 웃돌아

광주 조유나(10·5학년)양 일가족 3명의 시신이 29일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에서 수습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막을 내렸다.

경찰은 일단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극단적 선택 배경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곤란'이 이들 가족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족이 살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아파트 우편함에 각종 미납고지서가 수북이 쌓인 사실이 앞서 확인된 데다, 조양 부부가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에서 코인, 루나 코인 등 가상화폐를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양 부친이 과거에도 코인 투자 실패를 겪고서 사업체를 정리했다는 주변인 증언까지 나오면서, 기존에 쌓인 부채에 코인 투자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가족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양 부친이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연을 맺은 한 지인은 광주일보에 조양 부친이 지난해 코인 투자로 적지않은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조양 부친은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해왔다. 사업체 정리 전 코인 투자를 했다가 적지않은 돈을 잃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건대, 그때 코인 투자 실패만으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벌이와 비교하면 씀씀이가 적지 않으면서 생겨났던 기존 부채에 더해 올해 들어서 코인 투자 등 뭔가 새로운 경제적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 지인의 전언대로 조양 가족은 최근 2년 사이 줄곧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족의 잦은 이사와 폐업, 쌓인 독촉장 등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수록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조양 부부는 되레 학교에서 멀어졌다.

조양은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입학 당시 화정동에 살았으나 2020년 동구 용산동으로, 2021년 남구 백운동으로 이사했다. 마지막 백운동 집은 매매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월셋집이었고 이마저도 월세가 수개월 밀렸던 사실이 경찰 행적 조사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납고지서 등으로만 줄잡아 채무액을 집계한 결과 1억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 집 현관에 법원이 모친을 수신인으로 하는 카드사용료 지급명령 우편물 안내문을 붙인 것을 볼때도 적지않은 카드 사용료가 미납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조양 부모 휴대전화 검색 내역에서 확인된 '루나 코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29일 오전 경찰이 완도 신지면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조유나양 일가족의 차량을 인양 후 육상에서 시신 수습을 하고 있다. /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루나의 경우 지난 5월 1주일 사이 97%가 폭락하면서 국내외에서 피해자를 양산한 코인이다. 루나 코인은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회사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한국인 대표의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한편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시신이 바닷속에 있어 부패가 심했으나 조양 일가족의 강력 범죄 피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육안 검시 결과를 이날 오후 내놨다. 조양 부모의 지난 5월 휴대전화 검색 기록 확인 결과, 인터넷 검색 목록에 '코인' '루나 코인' 뿐 아니라 '수면제' '완도 물때' 등이 올라와 있던 점도 경찰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완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얘는 뭔 죄여…딸내미라도 놓고 가제" 탄식의 바다

완도 송곡항 차량 인양 현장

잠수부 4명 차량에 밧줄 걸고
유실물 없도록 그물로 덮어
차량 올라오자 주민들 한숨만
"이렇게 쉽게 목숨 버리나" 참담

"딸내미 혼자 두고 가면 천덕꾸러기 될까봐 같이 갔겄제. 맘은 이해하는디 얘는 뭔 죄여…. 앞날 창창한 딸내미라도 놓고 가제…."

실종됐던 조유나양 가족 차량 인양 직업이 진행된 29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이곳에는 인근 주민들과 광주 시민 100여명이 찾아와 조양 가족이 뭍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당초 인양 작업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작업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송곡항 방파제로부터 80m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에 바지선이 멈춰섰고, 이어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바지선 내에서도,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돌았다. 인양을 성급히 진행했다간 차량이 손상되거나 차 내 유실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버릴 수 있었다.

잠수부 4명이 크레인에 걸린 밧줄을 들고 수심 10m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작업은 먼저 밧줄을 차량에 걸고 3m 가량을 천천히 들어올려 펄에서 끌어낸 뒤, 추가로 차량을 단단히 결박하고 마저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 50분이 되자 조양 가족의 차량 아우디 A6의 네 바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색 차체가 차츰 드러날 때마다 주민들은 저마다 한숨을 쉬거나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가 지난 낮 12시 20분께 펄을 뒤집어 쓴 차체가 온전히 드러났고, 송곡항 일대에는 정적이 흘렀다. 양식장에 가지 못해 답답해하던 어민도, 구경 나온 주민도 말없이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량은 트렁크가 완전히 열려 있었으며, 앞유리에 금이 간 상태였다. 경찰은 유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그물로 덮고, 항구로 이동해 차량을 트럭 위로 옮겨 차 내 시신 수습을 진행했다.

차 내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는 경찰 발표가 이어지자 주민들은 "딸내미라도 놓고 가제", "짠해 죽겄네"라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정훈(62·완도)씨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남일 같지 않아 인양 작업을 보러 왔다"며 "아이가 너무 짠하다. 살다보면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한달음에 찾아온 전수미(여·42·광주시 서구)씨는 "내게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김현수(61·강진)씨는 "실종 가족이 빚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될 만한 복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느냐"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완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이상 체험학습 땐 담임이 매주 확인"

교육부 권고…유선 연락 안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후 실종됐다 주검으로 돌아 온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조양 실종사건 관련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참고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학생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할 때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과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해 왔다.

먼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는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아동이 담임교사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위기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험학습은 학교장 권한이라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개선책도 지난해 5월 교육부가 이미 시행을 권고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광주에서 도입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